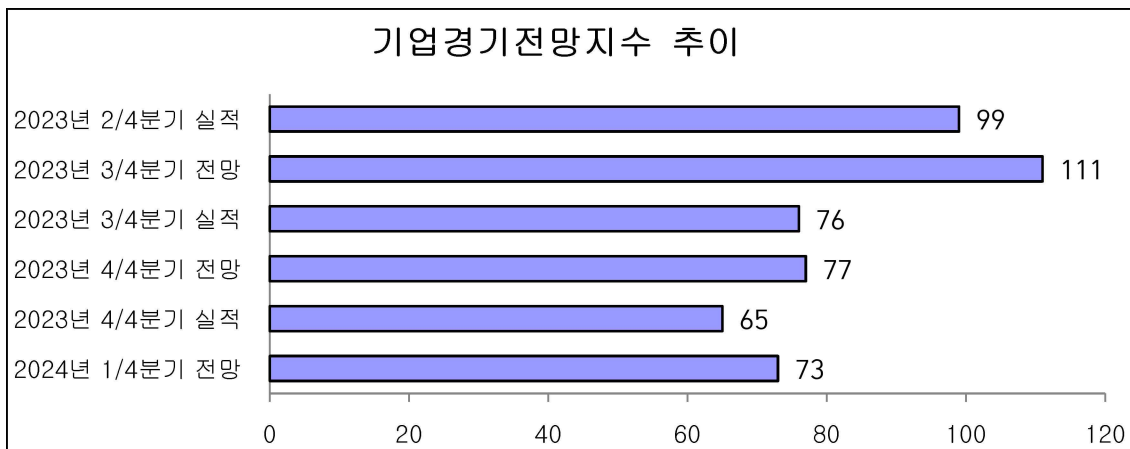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査結果	2024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경제사업부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4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4’ 포인트 감소한 ‘73’로 집계됐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11’ 포인트 감소하였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3년 2/4분기 실적	2023년 3/4분기 전망	2023년 3/4분기 실적	2023년 4/4분기 전망	2023년 4/4분기 실적	2024년 1/4분기 전망
체감경기	100	111	90	83	73	67
매출액	111	119	70	73	63	77
영업이익	100	107	63	63	57	70
설비투자	100	111	80	90	77	90
공급망 안정성	85	111				
공장가동 여건	96	104				
자금사정			77	73	57	63

2024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67, 매출액 77, 영업이익 70, 설비투자 90, 자금사정 63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이 100을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2023년 4/4분기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2023년 영업이익은 연초 목표 대비 어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항목에 '10%이상 미달' (41.38%)과 '10%이내 미달' (41.38%)이 응답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영업이익 미달의 핵심요인으로 '내수부진' (60.00%)이 가장 큰 응답을 차지했다.

한편 2024년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전략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안정전략' (80.00%), '성장전략' (33.33%), '축소화 전략' (6.67%) 순으로 응답했다.

2024년 회사 경영활동에 가장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 (29.31%)과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 (27.59%)가 응답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2023년 한해동안 수출 감소 등 경제문화가 이어져왔는데, 언제쯤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내후년(2025년)부터' (43.3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의 의견은 '내년 하반기' (30.00%), '이미 회복국면에 진입' (13.33%), '2026년 이후' (13.33%)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물가관리 및 금리정상화' 가 38.33%로 가장 높았다. 다른 의견은 '기업부담규제 완화' (23.33%), '노동시장 개혁' (21.67%), '수출경쟁력 강화' (11.67%), '국가전략산업 지원 확대' (3.33%) '미중갈등 등 대외위험 관리' (1.67%)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 2023. 11. 23 ~ 12. 6 (휴일제외 10일 동안)
-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 조사방법 : 전화, FAX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